

대구주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015.6.28.(나해) 제1950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가브리엘 폰 막스,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1878).
캔버스에 유채, 몬트리올 예술박물관, 캐나다.

† 오늘의 전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 5,21-43 참조)

우리 육신과 영혼을 지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은 것이 소생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집니다. 팔순을 바라보시는 교황님께서서는 젊은이도 노초가 될 만큼 세상을 두루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상호에서는 지어낸 웃음이 아닌 참된 기쁨과 열정이 빛납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 마르 5,21-43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이기태 베드로 신부 | 이곡본당 주임

내 나이가 어때서?

본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차 안에서는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요즘 대세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음악이 나오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앞으로 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무엇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즐겁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록 나이는 모두 70이 넘었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도 젊음의 열정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 역할은 단지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밖으로 뽐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만 드린 것뿐이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은 이제 사목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3포 시대(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슴 속 열정은 있지만 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소녀에게 “탈리타 쿴!” 즉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이 한 말씀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살아도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냉담자가 늘고, 예비신자는 줄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느님 나라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슴에 열정이 없으니 발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화려함만 보일 뿐 화려함 이면에 썩어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러니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희망과 빛을 줄 수 있는 열정이 없다. 교회 구성원이 열정이 없으니 교회에 생기가 없다. 교회에 생기가 없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내 가슴의 열정을 발산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라고 하신다. 이제 안일함을 버리고 일어나야 한다. 어르신들도 열정을 발산하는데 우리 교회도 시대에 따른 신앙의 열정을 쏟아내도록 하자. **필로**



교황 주일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교황님께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하느님 백성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헌금은 전액 교황청으로 보내져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믿음의 길

묵주기도 마니아

은종일 보니파시오 | 범어본당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온 지 어언 서른다섯 해이다. 돌이켜보면 앞쪽의 스물여섯 해보다 뒤쪽의 아홉 해를 ‘믿음의 깊이를 더했던 기간’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기도생활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서이다. 아홉 해 전, 객지로 떠돌아다니던 직장생활을 마치고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단원의 의무처럼 바쳤던 기도가 묵주기도이다. “묵주기도는 매일 다시 살아남을 만끽하는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심오한 방법”으로서 “온 정성을 다해 묵주기도를 바치면 주님과 성모님께서 평화와 화해를 주신다.”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성하의 말씀은 묵주기도에 불을 당겼다.

나에게 있어서 묵주기도는 아침 산책을 할 때가 제격이다. 하루를 여는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의례 같은 것이다. 계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루함을 잊아가고, 높은 산을 등산할 때는 사점(死點)에의 고통을 잊게 해 준다. 이제 묵주기도는 나의 삶 안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종내 묵주기도 마니아(rosary mania)가 되고 말았다.

나에게 묵주기도는 성경말씀 듣기이다.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각 다섯 가지씩, 모두 스무 가지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떠올린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스무 단을 바친다. 신약성경 안의 스무 가지 신비를

묵상하고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신약성경을 섭렵하는 효과에 버금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가. 매일이 신나고 즐겁다. 나에게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는 소통이고, 소통은 이름이 아닌가. 성모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노라면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에 이른다. 묵주기도 자체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에게 묵주기도는 사랑의 기도이다. 께미의 묵주 단마다 드리는 청원은 대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묵주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끔 한다. 묵주기도 마니아가 되기 전에는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의례적일 것이라고 과소평가하였다. 이제는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뱃을 자청하기도 한다. 내가 남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지를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질 못했다. 나에게 묵주기도는 장미화관 바치기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면서 돌리는 묵주 알마다 곱고 탐스런 장미꽃송이로 정성스럽게 장미화관을 엮어나간다. 서둘러 엮거나 장미송이가 들쭉날쭉하면 필시 불품이 없는 화관이 되리라고 염려하면서, 장미향을 맡으며 화관을 만드는 시간이야말로 꽃밭에서의 시간이다.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묵주부터 챙긴다. 주머니엔 이미 하나가 들어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불어 가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아드리아나 | 큰별 어린이집 원장

“○○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롱초롱한 눈을 만나며 아침인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순수함은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을 금방이라도 웃음으로 물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소속된 어린이집은 장애전담 2곳, 장애통합 2곳, 일반 어린이집 8곳 모두 1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과 단독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에 위탁을 받아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등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성실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독시설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몇 해 전,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에 근무할 무렵, 5월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예쁜 대학생이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냐고 묻는 질문에 방긋 웃으며 “선생님, 저 ○○이예요.”합니다. 1996년 1월에 입사해 처음으로 5세반을 맡아 1년을 키운 제자였습니다. 가끔이지만 몇몇 엄마들과도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오던 터라 어찌나 반갑고 설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품성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고 경험해 본 결과, 올바른 품성으로 자라는 아이 뒤에는 올바른 품성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더욱 이해하고 올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가정사도 나

누게 되고 그 분들의 자녀양육태도나 교육관도 나누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은 누구나 드는 생각이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예의범절, 배려심, 나눔, 타인에 대한 관심, 생명의 소중함 등. 넓은 의미로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생활속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는 자립심, 자존감이 저절로 생겨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분들 또한 어렵게 살아가지만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관심가지고,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자녀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미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아동학대사건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애써 외면해 보지만 주위의 시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해오고 있다고 자부하던 교사들도 회의감이 들고 자신감이 절로 떨어지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이 세상 살만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코 10.14)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신뢰

프랑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시민 혁명군에 포위되었을 때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프랑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비대가 도망갔지만 스위스 용병 700여명은 남의 나라 왕과 왕비를 위해 용맹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시민 혁명군이 퇴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스위스 용병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전사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 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오늘날까지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청의

경비를 담당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젊은 용병들이 목숨을 바치며 송금한 돈은 헛되지 않았습다. 스위스 용병의 신화는 다시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용병들이 송금했던 피 묻은 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금고는 그 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 은행은 안전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어 이자논커녕 돈 보관료를 받아 가면서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



금주의 성인

6월 28일	성녀 마르첼라(순교자, 알렉산드리아, 202년), 성녀 빈첸시아(설립자, 1784~1847년) 성 이레네오(교부, 주교, 순교자, 리옹, 140~202년경), 성 플루타르코(순교자, 202년)
6월 29일	성녀 살로메(공주, 은수자, 9세기경), 성녀 엠마(과부, 수녀, 구르크, 1045년) 성 바오로(사도, 순교자, 67년경), 성 베드로(사도, 순교자, 67년경) 성 카시오(주교, 나르니, 538년)
6월 30일	성 라이문도 롤로(선교사, 1232~1316년), 성녀 에렌트루다(동정녀, 잘츠부르크, 718년경) 성 테오발도(신부, 은수자, 프로뱅, 1017~1066년), 성 마르티알리스(주교, 리모주, 250년경)
7월 1일	성 마르티노(사도들의 제자, 주교, 비엔, 2세기경), 성 도미시아노(은수자, 수도원장, 440년) 성 아론(구약인물, 사제), 성녀 에스테르(왕비, 구약인물, BC 5세기경)
7월 2일	성 마르티니아노(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성녀 모네군다(과부, 수녀, 570년경) 성 오토(주교, 밤베르크, 1060~1139년), 성 프로체소(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7월 3일	성녀 무스티올라(부인, 순교자, 3세기경), 성 아나톨리오(주교, 콘스탄티노플, 458년) 성 토마스(사도, 순교자, 1세기경)
7월 4일	성녀 베르타(과부, 수녀, 블란지, 725년경), 성 호세아(구약인물, 예언자, BC 8세기경) 성 오도(주교, 캔터베리, 959년), 성 엘리사벳(여왕, 3회원, 포르투갈, 1271~1336년)



■ 서재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14일(일) 오전 11시 서재성당에서 125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 대구SOS어린이마을 신축 가정 축복식



대주교님께서는 6월 20일(토) 오전 11시 대구SOS어린이마을 설립 52주년 마을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어 신축 가정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6주간, 2015. 6. 2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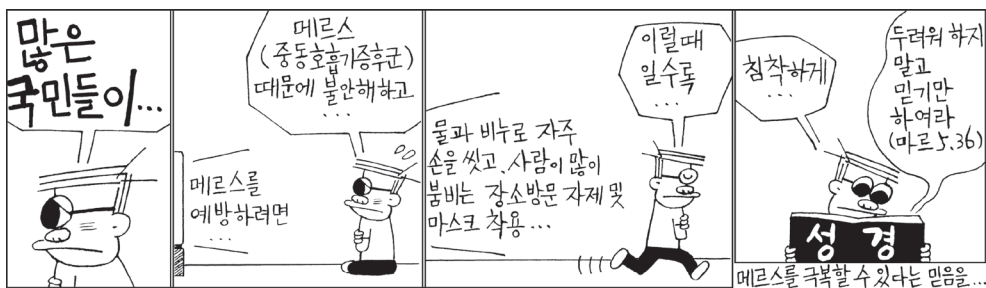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잠언14-17장	18-23장	24장	25-29장	30-31장	코헬1-6장	7-12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코헬렛』 - ‘회중예가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또는 ‘설교자’의 의미이다.

저자는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1,2)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과 자연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예찬하고 즐기라고 한다. 즉 삶은 시간의 절대적 주인이신 하느님의 선물이므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겸손히 개방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찬미할 때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삶의 한계와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음을 가르친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미사안내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4일(토) 11:00 대안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7월 4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7.5(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시간에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선교사제 성소문의는 언제나 환영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7.4(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정의의 거울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다사성당, 587-7300

7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7.11(토)~12(일)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054)975-5151

렉시오디비나 '성독' 심화 피정(4박 5일)

기간: 8.5(수)~9(일) 입문과정수료자

장소: 왜관교정의 집, 인원: 40명 (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OSB) / 피정비: 35만 원

(국민 645902-04-184941 이화숙)

문의: (010)5399-0669 / (054)971-0722

성경 통독 피정

기간: 8.23(일)~31(일)

장소: 바들로교육센터

형태: 숙박·출퇴근 선택가능

문의: 783-9817 / (010)3360-9817

교육 | 모집

빛떼제기도 초대

일시: 7.11(토) 18:00~21:00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신청: (010)9056-9005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7.29(수)~31(금)(40기)

장소: 구미선산청소녀수련관

비용: 28만 원 / 다음카페: 우아청

대상: 초·중·고·대생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제3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5(토)~8.2(일) 8박 9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정훈 신부, (010)5607-2046

홈페이지: <http://www.terrasanta.kr>

가톨릭신문 크루즈성지순례

기간: 9.29(화)~10.12(월) 13박14일

장소: 서부지중해 일주

경비: 내측 49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일자: 9.5,19(토)/ 10.17,31(토)/ 11.14(토)

출발: 9:00, 계산성당

참가비: 2만 원(중식 포함)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bc.co.kr, 단체 신청 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문의: 251-261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문의: (010)3375-4408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정운(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상위 1%의 공,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종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상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백 신경외과 의원

CT 및 초음파 검사
영상투시 및 프롤로 치료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 전문업체 · 1급정비사업체

CBM 대동정비

차량광고도색, 차량랩핑, 실사출력
학원차량전문, 기업차량도색 및 랩핑
특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 황용호(루치아노)
☎ 053)963-4794 010-5913-8417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프로보청기

미국·덴마크 보청기(세계1위~5위) 렌탈·판매

김은연(세실리아)
☎ 010-6481-8848
☎ 053)421-8588
동인타워에서 경대병원방향 10m
(세기보청기 본사 옆)

행사 | 모임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6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7.11(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3(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입학홍보실): 235-4560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민요교실, 한국무용, 바이올린, 플룻, 우쿨렐레, 오카리나, 통기타, POP, 초크아트스쿨, 톨페인팅, 바리스타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교대역)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32차: 7.10(금)~12(일)
333차: 7.31(금)~8.2(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2015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
(몬테소리대학원 신설)
접수기간: 6.29(월)~7.10(금)
문의: 850-3583(일반)
660-5512~3(특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반(40명): 개강 9.13~종강 12.13
교육: 월, 수, 금 18:30 / 토 14:00
대상: 65세미만 신자 / 학력, 남녀 무제한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푸른평화예술치료 상담연구소

내용: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 및
진로·학습코칭, 가족치료, 집단상담치료

아동, 청소년 바우처 제공기관(수성구 관할)
다음카페: 우리마음연구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http://www.ecopeace.or.kr>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비전선포식

7.16(목)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Stella 2020 사랑과 섬김으로
치유의 희망을 주는 최고의 병원!”
이란 비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모기사회 성모신심미사

메르스로 인하여 7월 4일(토) 10:00
성모기사회 신심미사가 없습니다.

교구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일성, 변희수, 이세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에서 운영하는 『데레사소비
센타』는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곳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데
레사농수축소비센타』는 개인 소
유로서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7월 4일(토), 11일(토)	예수성심시녀회 김운선(마리요셉) 수녀
7월 18일(토), 25일(토)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현익현(바르톨로메오) 신부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야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전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부종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행복의료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회 자(무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두류타운 뒤편(시내배송가동)



헤나 염색약

전문점/취급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허가제품

(주)한아코스메틱

053)741-7912 | 010-3526-6539

대표 전 영 자(마리아)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